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다

16개 언어로 발간되어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가 발간 29주년을 맞았다.

선악과를 두신 섭리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장차 사람이 경작을 통해 상대성을 체험함으로써 참 행복을 누리게 원하셨기 때문이다.

“주 날개 아래, 평안합니다~”

의학이 아닌 권능으로 질병을 치료받거나 교통사고, 화재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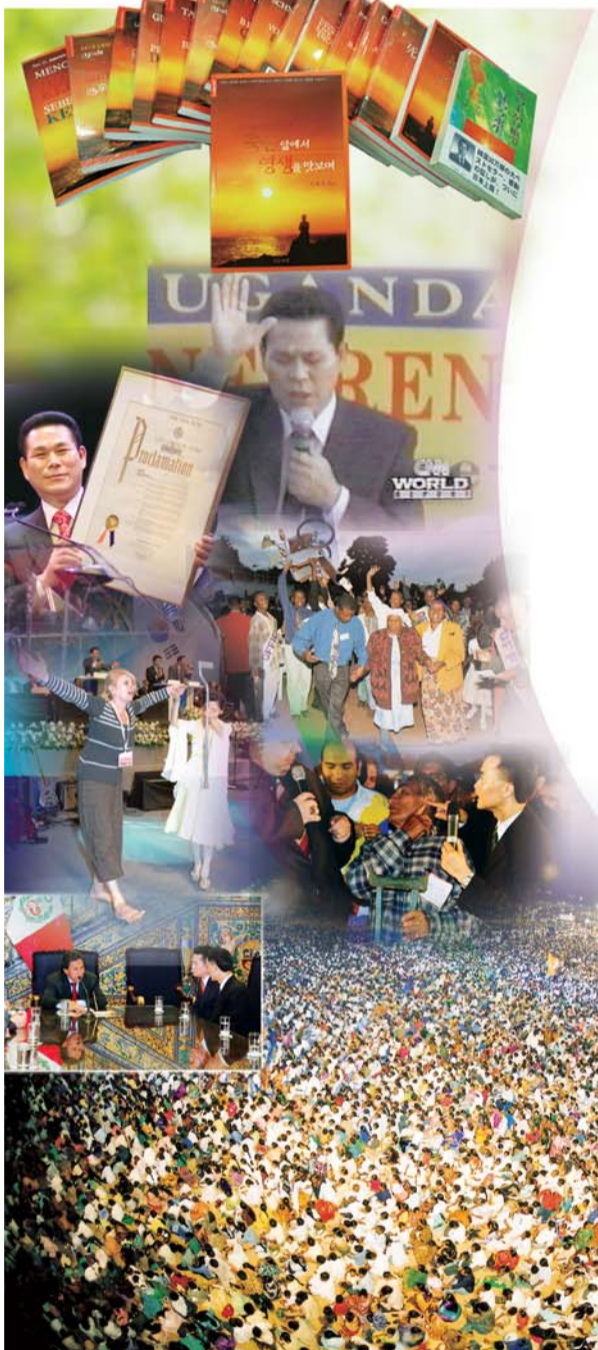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성결의 말씀

기도의 응답으로 만민중앙교회에 인도받은 최정현 집사, 말씀과 권능으로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은 김은숙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734호 2016년 4월 1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스테디셀러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나는 증거하노라

병든 몸과 상처난 마음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갈 때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술하고 중한 질병들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불로 단번에 깨끗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을!

말주변 없고 기억력 없고 부끄럼 잘 타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양떼를 인도하도록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7년간 병든 몸과 상처난 마음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둘째 누나의 기도와 전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1974년 4월 17일 죽음 앞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본 그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었다.

1978년 5월,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말씀과 기도로 성결을 이루며 권능을 받아 1982년 7월 교회를 개척, 34년 만에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다.

마지막 때 전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방송과 문서 선교에 힘쓰며 사랑의 사역을 펼치는 세계적인 권능의 목회자, 이재록 목사의 이야기이다.

◀ 2000년 이후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 세계 곳곳에서 개최된 '이재록 목사 초청 연합 대성회'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였으며 집회 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CNN에 보도된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기독교 지도자로도 2년 연속 선정되었다.

본당 예배전경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진솔한 인생 여정이 담긴 첫 번째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가 발간 29주년을 맞았다. 1987년 4월 17일에 발간한 이 책은 그동안 영어, 불어, 중국어를 비롯 16개 언어로 발간되었으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국내외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각종 질병을 치료받는 등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한편, 이재록 목사의 저서는 104권의 한국어, 61개 언어의 다국어 종이책과 50개 언어, 350여 종의 다국어 전자책(e-book)이 발간되어 판매, 유통되고 있다.

> 이재록 목사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 1, 2
>> 이재록 목사 두 번째 간증수기
멈추지 않는다



파커 찬드 목사
(파키스탄 영광의 교회)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은 후 축복이 넘칩니다”

2012년, 저는 교회를 개척해 15년이 지났지만 성도 수가 35명에 불과했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집세, 교회세조차 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교회 문을 닫고 직업을 구하려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없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속히 사역만 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어렵

기만 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슬라마바드로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파키스탄을 방문하신 길태식 목사님을 통해 전달받은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 책은 저의 삶에 찾아온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의 교회에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니 성도 수가 늘고 구제하는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2013년부터 개최하는 치유 성회에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사람들이 참석해 기적과 치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책은 영혼을 승리하게 하며, 사람들의 삶에 기적과 치유를 주는 훌륭한 큰 자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재록 목사님을 읽고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간증하는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5~17)

선악과를 두신 섭리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지요. 그런데 무수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2.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과정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면 첫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뱀을 소름끼치도록 징그럽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류가 간교한 뱀으로 인해 사망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동산의 뱀은 오늘날과 달리 사랑스럽고 보기에 좋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물었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했던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변질시켜 버린 것이지요. 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와가 간교한 뱀의 미혹을 받아 들이니 예전과 달리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동하여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탐스럽게 보였지요. 결국 아내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죄의 값은 사망’ (롬 6:23)이라는 영계의 법칙대로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당장 호흡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은 육의 죽음뿐

아니라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게 될 것을 의미하므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영적 교통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까지도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이 땅의 만물도 다 같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창 3:17).

뱀은 더욱 큰 저주를 받아 창세기 3장 14절에 “...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지니라” 하셨지요. 여기서 뱀은 영적으로 원수 마귀 사단을 의미하며, 흙이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이 죄 가운데 사는 육의 사람들을 밥으로 삼아 시험, 환난, 재앙을 준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육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원수 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

그러면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을 아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

생령으로 창조된 첫 사람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동산에서 불행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하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에 살았어도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없었지요. 사람이 어떤 것의 참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체험하여 상대성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태어나서 전혀 아파 본 적이 없다면 병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모르며 건강에 대한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굶주림으로 고생해 본 사람이라면 풍성한 음식에 감사할 수 있고, 약이 있어야 선이 얼마나 좋으며,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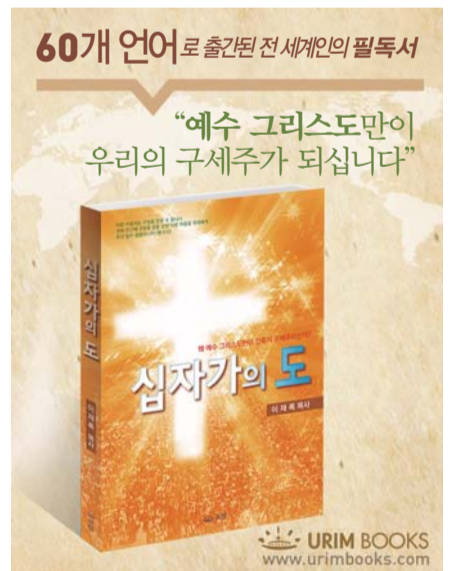
첫 사람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죽음을 본 일이 없었기에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 죽음, 이별, 죄악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한 후에는 에덴동산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편히 살아가도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잠깐 고생할지라도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시고 상대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자유의지 가운데 범죄함으로써 인류는 추위와 더위, 질병과 가난, 배고픔, 이별, 죽음 등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상대성을 알고 경작 과정을 겪은 후 장차 천국에 가면, 천국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며 세세토록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인간 구원의 길도 예비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잠시 슬픔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이후에는 지극히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인간 구원의 길을 깨닫고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기쁨과 행복,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고 오묘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셔서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셨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의로 선악과를 두시고 사람이 범죄케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 경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은 어른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지만 지식적으로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에덴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와 진리, 선, 빛 등의 많은 영의 지식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로써 생령 아담은 만물의 영장답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지요.

그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대로(창 1:28) 아담은 많은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였고,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만물의 영장으로서 큰 권세를 누리며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의지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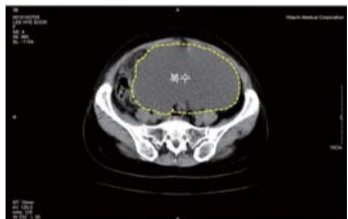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요한삼서 2절)을 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권능의 기도로 결핵성 복막염·늑막염을 치료받았어요

이혜숙 권사 (54세, 2대대 13교구)



작년 9월 말, 다이어트를 해도 유독 복부가 불러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복부 CT촬영을 하였는데, 복수가 차있고 흉수도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10월 27일 병원에서 MRI 등 각종 검사를 받고 결과를 보니 혈액에서 CA-125 수치가 660이고 복수가 많아 암이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검사를 위해 복수 3500 cc를 뺐음에도 바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아왔기에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 기도받기 전 : 복수가 아랫배 전체에 분포되어 있음

저는 믿음으로 치료하고자 기도로 준비하던 중 11월 23일부터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이복남 원장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는데 아래로 뜨거운 것이 빠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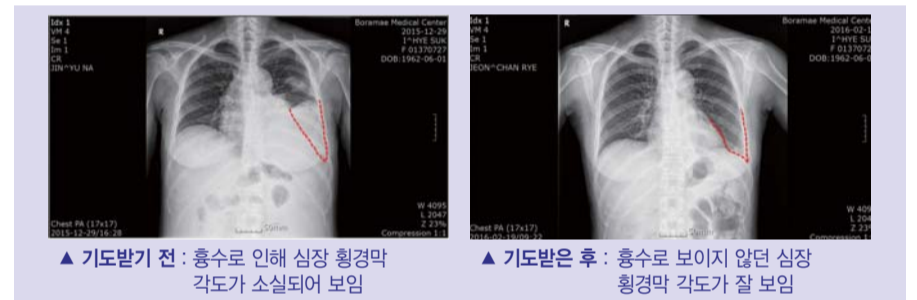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자주 소변을 보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복수가 거의 빠져 있었지만 검사 결과는 오히려 CA-125 수치가 700으로 상승되어 있었지요.

정확한 병명이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20일 후에는 다시 복수와 흉수가 빠르게 차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어렵고 기침이 심해지면서 식사를 하지 못하니 체중이 15 kg 이상 빠졌습니다. 의사는 2차로 암과 관련된 각종 검사를 다하고 복수, 흉수 검사까지 했으나 병명을 알 수 없다며 ‘괴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산상기도 중이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교회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를 알면서도 행함이 너무 부족한 제 모습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12월 27일, 드디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29일 3차 검사를 했는데, CA-125 수치가 286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강경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런 처방이 없었지만 식욕이 돌아와 잘 먹고 잠도 잘 자니 제 몸은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보름 뒤 검사 결과는 결핵성 복막염·늑막염이었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께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주 후 정기검사에서 상태가 너무 좋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 기도받기 전 : 흉수로 인해 심장 횡경막 각도가 소실되어 보임

▲ 기도받은 후 : 흉수로 보이지 않던 심장 횡경막 각도가 잘 보임

영혼이 잘되니 위험천만한 화재에서도 보호받았습니다



안톤 베구 성도 (41세, 우크라이나 하르코프 시)

2009년, 저와 아내는 TBN 러시아 방송을 시청하던 중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뒤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서 많은 설교와 찬양, 간증 등을 들으며, 동영상, 음성파일, 텍스트를 다운받아 주변 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지요. 8개 언어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어 생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 행복했습니다.

사업터에도 축복을 받아 바라바쇼바 대형 쇼핑센터에서 여러 개의 상점을 운영하고 십일조도 크게 불어났지요. 그러던 작년 11월 14일, 갑자기 저희 가게가 있는 두 개의 쇼핑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은 삼시간에 번져서 2동 건물이 전소하다시피 하였고, 그 중 150개의 점포는 모조리 타버렸지요.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은 어느새 저희 상점들이 있는 1동 건물에까지 번졌습니다.



저희는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서울에 연락하여 기도를 부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라 그저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공간 안에서 지켜주세요.”라고만 기도를 올렸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번지는 화염 속에서도 저희 상점들은 화재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진열 상품 하나도 상한 것 없이 완벽하게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박영덕 성도 (59세, 1대대 4교구)

2016년 2월 19일 새벽, 저는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서 있는 11톤 화물차를 보지 못해 그만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달리던 속도 그대로 서 있는 차를 들이박은 것입니다. 차를 밀고 들어가 앞차 뒷바퀴들이 펑크가 났지요.

그 순간 지난날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아릴 수 없이 담배를 끊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박을 하다보면 어느새 주일 새벽이 되어 주일을 범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제 차량 앞부분은 마구 구겨진 종이조각처럼 완전히 찌그러지고 핸들까지 휘어졌지만 오직 운전석만 멀쩡했던 것입니다. 살아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앞차 기사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차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내가 살아 있는 것인가.’ 어안이빙빙했습니다. 그때 “죽지 않았을까?” 하는 견인차 기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 내가 살았구나. 목자의 권능으로 살아 있구나.’ 하며 살아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지요.

사고 이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우치니 도박은 물론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고, 세상 것들을 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니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해 눈물만 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 기적적으로 운전석만 멀쩡했던 사고 당시 차량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말씀의 보화를 찾았습니다!

제가 몸담을 교회로 생각했던 교회상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목사님,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성령의 가르침, 기도를 많이 하는 뜨거운 교회였지요. 불행히도 저는 거의 십년 동안 이런 교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참된 교회로 인도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우연히 스마트 기기 티비 앱을 새로 깔다가 낯설지 않은 목사님의 사진으로 된 아이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이었지요.

놀랍게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아주 깊은 부분까지 심도 있게 설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영적 의미를 말씀하시며, 죄를 회개해 버리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방법과 성령의 능력의 증거도 함께 말씀해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교 동영상에 해당 음성파일과 요약 텍스트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수천 편에 달하는 설교들이 공개되어 있었으며, 당회장님의 신앙서적은 100권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모든 설교를 가리거나 숨기지 않는 '이런 자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놀라웠고 이후 만민중앙교회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더욱 저를 사로잡은 것은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거의 연중무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만민중앙교회에 가서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기도의 영적 뜨거움과 감동, 기도하는 분들의 자세와 교회 분위기, 따뜻하고 밝은 느낌과 성전 내부의 밝고 환한 모습은 제 상상을 초월하였고,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지요.

그 후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시는 같은 대학교 박상열 교수님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금요철야예배는 금요일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말 그대로 '진짜 철야'로 드러진다는 말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으며 함께

을 받으며 함께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와 감동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당회장님의 놀랍고 명쾌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과 세상에 대해 품었던 의문들이 남김없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영과 혼과 육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의 깊은 죄성까지 발견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마음을 영으로 채워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능력과 은혜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정현 집사
광운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59세, 3대대 23교구

'창세기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 '믿음의 분량', '영혼육' 등은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참으로 놀라운 하늘에 속한 지식의 보화들이지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과 은혜로 매우 행복합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려 주시며 그 증거가 풍성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말씀으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니 평안과 행복이 넘칩니다!

김은숙 집사
36세,
2대대 15교구



저는 제사와 불공을 드리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원수처럼 지내셨고, 아버지의 도박과 외도,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저 역시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런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시고, 그 장면을 목격한 저는 큰 트라우마로 남았지요.

을 도맡아 하며 모범생이었던 제가 부모님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편과도 자주 싸우고 다투며 여러 차례 이혼 직전까지 이르게 되자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삶의 상처를 자녀에게는 대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

다. 2008년, 결혼과 출산을 하였지만 내면의 상처는 전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과거의 기억들이 저를 괴롭혔고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는 반장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건가... 내 마음은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지? 신이 아니면,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교회에 다니고 싶어졌고, 2013년 7월 28일에 지인의 전도로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경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를 수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심리서를 접하며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기에 말씀을 들은 후 당장 기도를 시작했고 가지고 있던 우울증 약도 모두 버렸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제 이마 위에 하얗고 기다란 벌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그 벌레를 이마에서 떼어내는데 머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뻗어 나오고 그 몸에선 푸른색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저를 괴롭히던 생각의 뿌리가 빠져나온 듯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울증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남편도 주님을 영접해 기도를 쉬지 않고 충성하기를 즐겨하니 사업터에 축복이 넘치지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920-4512, 010-3343-153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5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6-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청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충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사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